농식품 유통 구조 거품 뺀다

전남도, 광주·목포 등 5곳에 '파머스 마켓' 개설 추진

생산자 실명제·가격표시제·리콜제 도입…신뢰 높여

전남도가 고유가와 비료를 비롯한 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농산물 유통구조의 거품을 뺀 직거래 장터인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을 운영한다.

파머스 마켓이란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또는 농식품을 직접 판매하는 형태의 시장으로 '정기 장터형', '생산자 차량순회 판매형', '생산자 산지판매장형'등이 있다.

전남도는 최근 광주시와 협의를 거쳐 시민공원이나 주민자치센터 등에 주 1회 이상 열리는 정기장터개설을 추진중이다.

또 목포와 여수·순천·광양 등 5개 지역에 각 2개씩 10개의 파머스 마켓을 개장할 방침이며, 주 1회 이상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문을 열 계획이다.

광주 마켓의 농산물·농식품은 담양·장성·화순·나주 등 근교 지역 농가에서 공급하며 기타 시·군은 해당 지역 농가에서 공급받아 운영하게 된다.

파머스 마켓의 장소는 아파트 단지나 소공원,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 왕래가 빈번한 곳으로 하되 면적을 60~90㎡로 제한함과 동시에 재래시장·식료품점 인근에는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마켓을 열지 않기로 했다.

특히 농산물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생산자 명찰·사진 부착, 생산자 연락처 표시 등 생산자 실명제를 실시하는 한편 가격표시제 이행 및 위생상태 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리콜제도 도입된다.

전남도 고근석 농정국장은 "파머스 마켓이 정착되면 소비자들은 유통업체 대비 20% 이상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생산자들도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어 그만큼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도, 관광객 3천300만명 시대 연다

황포 돛배·앙드레 김 패션쇼 등 독특한 상품 개발 내달부터 운영

전남도가 2008년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여름철 여행 신상품 개발과 '앙드레 김 패션쇼' 등 다양한 관광객 유인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한해 3천300만명의 외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여름철을 맞아 해수욕장을 상품으로 하는 남도만의 독특한 여행 상품을 내놓는 등 관광객 증대를 위한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황포돛배와 전남도립국악단 토요공연, 토요 경매 등 남도의 정취가 물씬 풍겨나는 5개의 문화상품과 홍도·흑산도, 증도 염전체험 등 여름 특선 상품 20개를 선정해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월 14일 '슬로시티 증도 걷기여행'을 통해 세계인증 슬로시티인 신안 증도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국내 체험여행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10월에는 여수에서 일본 등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최지우와 송승헌 등 한류스타가 출연하는 '앙드레 김 패션쇼'를 개최하는 한편 같은 달 진도군 녹진광장에서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에서 열린 굿을 총체적으로 재현하는 '국제 굿 페스티벌'도 열 계획이다.

또한 10월 11일부터 4일 동안 해남·진도 명량해협 일원에서 '2008 명량대첩 축제'를 통해 명량해전 재현, 명량대첩 창무극 공연, 강강술래, 평화기원 추모제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대비하고 다도해 해상관광 활성화를 위해 거북선형 유람선단, 다도해 관광유람선을 제작, 운영할 계획이다.

주동식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은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전국 최초로 운영되고 있는 토요경매를 비롯해 승마산업, 국제요트대회,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등 특화된 참여·체험 관광상품 운영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의 전환점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중복·시대 동떨어진 규제 해제를"

광산구, 기업활동 제약 32건 발굴 정부에 건의

광산구가 최근 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사항 32건을 발굴해 정부에 해제를 건의했다.

광산구는 지난 4월 규제개혁 태스크포스팀(이하 규제개혁T/F팀)을 구성해 경제산업, 보건복지, 도시건설, 문화관광, 지방행정 등 5개 분야의 규제사항을 분석해 왔다.

이번에 구가 건의한 규제개혁 대상들에는 시대 변화에 동떨어지거나 중복되는 규제, 수요자의 속도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항목들이 포함됐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소규모 공장설립의 심사 규정 간소화, 도시지역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항목 개선 등 5개 항목이 담겨 있다.

또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구분을 없애는 식품접객업 통합, 보육시설 설치인가 절차 개선, 건축법상 용도변경 관련 조항 들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신품종 백장미 '이노센스' 인기

道농기원 출하…줄기 곧고 향기 좋아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신품종 장미 '이노센스〈사진〉'가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장미 '이노센스'는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지난 2001년 개발에 착수해 지난해 3월 품종보호 출원과 함께 농가 실증시험을 거쳤으며 최근 품종의 시장성 검증을 위해 시장에 출하했다.

출하 결과 꽃모양이 좋을 뿐만 아니라 줄기가 곧고 향기가 있어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특히 흰가루병, 노균병에도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생산농가들이 선호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

나주지역 초등학생들이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인 '드림 스타트' 사업 일환으로 지난 25일 전북 임실에서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를 가졌다.

나주 초등생들의 '특별한 문화체험'

드림 스타트 사업…임실 치즈체험장 답사

나주지역 초등학생들이 '특별한 문화체험'을 했다.

영산포 초등학교와 영강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36여명은 휴일인 지난 25일 임실군의 치즈 체험장에 들러 치즈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 놀이동산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번 문화체험은 나주시 '드림 스타트'팀과 함께 했다. 드림 스타트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로 건강, 복지, 교육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나주시는 올해 드림 스타트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지난 15일에는 무릎질환을 앓고 있는 김은화(12)어린이가 MRI(자기공명영상촬영)검사와 함께 치료를 받도록 주선했다.

나명수 드림스타트센터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희망을 갖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배추흰나비병 유전체' 세계 최초 해독

함평군 곤충연구소·전남대·인제대 연구팀 개가

나비 대량 생산길 열어…산업화 획기적 전기

함평군이 세계 최초로 배추흰나비 과립병 바이러스 유전체를 완전 해독해 나비 대량생산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함평군은 27일 '배추흰나비 과립병 바이러스(granulovirus) 유전체 완전 해독 연구성과 발표회'를 갖고 "세계 최초로 배추흰나비 집단폐사의 원인 병원체인 과립병 바이러스의 게놈(Genome)을 완전 해독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나비 대량생산으로 나비·곤충 산업 활성화와 친환경 미생물 농약 생산이 가능케 됐다.

특히 배추흰나비 모델에서 개발한 분석 방법을 인체와 가축의 바이러스 유전체 규명에도 적용할 수 있어 생물정보학을 이용한 바이러스 유전체 검증법에 대한 국제 및 국내 특허출원도 추진된다.

그동안 나비 병원성 바이러스가 배추 흰나비의 유충에 집단 감염, 폐사하는 경우가 많아 나비 대량사육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연구에는 인제대학교 이용석 교수,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한연수 교수, 유전체 연구 전문기업인 ㈜지앤시바이오, 함평군 곤충연구소 정헌천 소장 등이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배추흰나비 과립병 바이러스 유전체 해독은 나비 대량생산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특허 출원을 통해 나비·곤충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광주~무안 고속도 이용하면 입장권 할인"

함평나비엑스포조직위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가 광주~무안공항 고속도로 개통을 기념해 29일부터 폐막일인 6월 1일까지 고속도로 이용객을 대상으로 엑스포 입장권 할인행사를 개최한다.

조직위는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소지자 가운데 입장권을 현장 구매하는 관람객에게 동반한 최대 5명까지 한 사람 당 2천원(유아는 1천원)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광주~무안 고속도로가 개통된 것을 축하하고 종반에 접어든 엑스포에 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할인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